

사슴의 炭水化物 過食症

김 찬 규

통일동물병원

現在 우리나라에서 人工飼育되고있는 사슴의 飼料는 주로 山野草(취녕쿨, 아카시아잎, 도토리나무잎, 떡갈잎, 싸리잎 등)와 여기에다 송아지용 配合飼料를 급여하고 있는것이 보통 상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靑草를 採取하여 급여하는 6월부터 10월까지의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乾草를 급여하는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의 飼養管理에 問題點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를 견디어 내기위한 熱量의 소모가 많아지므로 배합사료(농후사료)의 量을 增加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반면 잘 소화되고 질 좋은 粗飼料도 많이 먹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겨울용 乾草의 量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乾草採取期에 乾草를 잘못 말려서 보관하므로 부패되거나 質이 좋지못한 건초를 그대로 급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건초는 자연히 사슴이 덜 먹게 마련이며,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T.D.N.급여비율인 1 : 3의 비율이 逆으로 급여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옥수수, 밀, 보리 등 곡물이 주성분인 배합사료의 과량급여로 일종의 炭水化物 中毒 증상을 나타내 발병되므로 일명 “穀物過食症”이라고도 한다.

간혹 배합사료 외에 고구마, 감자, 사과, 비지, 도토리찌꺼기 등의 과식도 원인이 되기도 한다.

症 狀

사슴의 행동이 둔화되며 때로 걸음걸이가 이상하며 제 1胃가 充滿되고 복통을 나타낸다. 간혹 기지개를 펴는것과 같이 뒷다리를 뒤로 짓히는 동작을 하며 침울하고 식욕이 없거나 절제한다. 반추작용을 볼수없으며 활동을 기피하고 자주 앉아 있으려고 한다. 심장의 박동수는 증가하고 呼吸數도 증가한다. 때로 연변이나 하리변을 발하기도 하는데 결국 第一胃食滯가 병발되기 때문에 “第一胃食滯”와 同一한 병명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第一胃를 聽診해보면 取縮音은 잘 들을수 없으며 液体性內容物이 多量 貯留된것과 같은 音を 대부분 청취할 수 있으며 촉진시에도 탄력을 보인다.

起因論

炭水化物이 많이 含有된 飼料를 攝取하게되면 第一胃內에서 炭水化物을 利用하여 多量의 乳酸을 生成하는 連鎖狀球菌의 數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 細菌에 依하여 第一胃內의 酸度가 증가되며 섬유소(cellulose)를 分解하는 有益한 正常細菌 및 原虫을 파괴하므로써 第一胃運動이 정지되고 第一胃食滯가 발병된다.

또한 乳酸이 급격히 증가되므로써 第一胃內 滲透壓이 상승되고 이로 因하여 水分이 第一胃內로 빠져나오므로써 脫水현상을 招來하게되며

오래 진행되면 眞菌의 成長을 촉진하므로서 眞菌性第一胃炎을 속발시킬수도 있으며 炎症의 과급으로 因하여 肝臟炎을 일으키기도 하며 더 확산되면 急性腹膜炎을 일으켜 斃死 할수도 있다.

治療 및 予防对策

第一胃内の 酸과 監基의 均衡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重炭酸소다를 투여하여 Acidosis 를 막도록 하여야 하며, 전해질液을 보충해주므로서 脫水症의 치료와 순환혈량을 보충해 준다.

대개 경증일 경우에는 위와같은 조치외에 위장운동을 자극하는 부교감신경흥분제와 항Histamine제와 Corticosteroid제 등을 주사하며 유산생성균의 억제를 위하여 抗生劑를 使用한다.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게 되면 2~3일후 부터는 건초를 약간씩 먹기 시작하고 제 1 위운동도 나타나며 생기가 나타나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병세가 호전되었다가 악화되는 경우는 예후가 극히 불량하며 자주 앉아 있거나 더욱 침울하고 쇠약해지는것을 현저히 볼 수 있다.

중증일 경우에는 정확히 판단하여 第一胃切

開術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 1 위 절개후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염증상태 여부를 확인한다음 위추축물(Rumen extract)을 소량의 건초와 함께 넣어준다. 이러한 外科의手術로 치료될수 있지만 축주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식시키고 수술을 해야하는 애로때문에 살릴수 있는 사슴을 폐사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된다.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결국 사양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제도해 나가도록 힘써야하며 특히 질 좋은 良質의 건초를 많이 준비하여 조사료를 되도록 많이 채식하도록 하여야 하고 곡물의 자유급식으로 인하여 곡물과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사양관리에 힘써야 한다.

배합사료의 급여는 사슴체중 50kg당 500gm 정도를 1일 2회에 나누어 급여토록 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배합사료에 무기염류, 비타민 등을 더 첨가해 주는것이 좋으며 혹한의 계절에는 사슴이 운동을 기피하므로 적당한 운동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급성식체 예방을 위한 소화효소제 등의 투여도 질병예방에 도움이 된다.

最新

畜産法典

農水畜産新報 발행

價格 25,000원

대한수의사회 판매중